"벼랑 끝 전북, 대전환 합니다"

민주 김윤덕 의원, 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200만 도민 · 3%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지역총소득 1인당 4만달러 '2 · 3 · 4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29일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터에서 줌(Zoom)을 통한 도민 100인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9일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터에서 줌(Zoom)을 통한 도민 100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능을 뛰어 넘는 도전적 행정, 전투적 정치로 벼랑 끝의 전북도를 대전환하겠다"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먼저, 전북의 현실과 관련해 "지난해 전북도내 출산율은 0.85%를 기록했고, 매년 6000여 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는 등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평가하며 "더 늦기 전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전북은 끝내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0만 도민, 3%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지역총소득(GDRP) 1인당 4만 달러를 뜻하는 '2·3·4 전북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3·4 전북비전' 실행 약속으로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한 전북의 경제영토 확장, ▲5권역 경제블록화와 로컬파워를 통한 전북경제의 대전환, ▲매력적인 청년기회 특별도, ▲잘사는 농생명식품 수도,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문화관광 수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포용 선도 도시, ▲미래 혁신 인재의 요람, 싱크빌 등 7가지 실행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실현가능한 전략적 SOC 대전환과 타 시도와의 공격적 '광개토 협력사업'를 통해 전북경제 영토를 14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확장하겠다"며 "전주-완주통합시가 광개토 협력사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5개의 신 산업을 5개 권역으로 묶는 경제블록화와 로컬파워를 통해 전북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청년 당사자가 정책을 주관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청년기회 특별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농생명식품 수도 공약으로는 ▲전북형 농식품벤처기업 육성 지원센터 구축, ▲식품클러스트 글로벌 거점화 추진,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AI농업연구센터 설치, ▲농민수당 지급 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문화관광 수도 공약으로는 ▲서해안 6차 산업 관광벨트 조성,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한스타일 사업 공격적 지원, ▲국립무형유산원 위상 강화 및 인프라 사업 지원, ▲1조원 규모의 새만금 K-POP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유치의 중요 요소인 인재 육성을 위해 도지사 직속 '기술(인재)위원회'와 '전북 연합대학 지원 센터' 설치 등을 통해 미래혁신 인재의 요람, 전북 씽크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직격답게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전북 14개 시·군 공약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전북 약속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주시 공약으로 ▲전주시청 복합개발, ▲전주역세권 개발, ▲대한방직터 개발, ▲아중호수관광개발 등 4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약속하는 등 전북 14개 시·군별 중점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옛 대한방직 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도심 한가운데 버려진 땅처럼 있는 이곳이 멈춘 전북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며 "전북 정치인들이 청렴을 위해 기업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꺼려하는데, 저는 과감히 기업인들과 손을 잡고 전북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의 지난 8년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그동안 원만하고 완만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잘했다, 못했다나 옳다, 그르다는 말보다는 지금은 새롭고 더 과감한 것이 도입되는 게 맞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대안 없는 분노와 불만이 아니라, 쇄신과 혁신으로 어려운 가운데 희망의 길을 열겠다"며 "장밋빛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벼랑 끝 전북에서 김윤덕이 위기 속 숨어있는 기회를 꼭 잡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 의미 복원 위한 첫걸음"

민주 김성주 의원, 국회 문광위 전체 회의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중원, 예맥 추가 예정) 통일신라의 쇠퇴 이후 도탄에 빠진 민심을 받아 안으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후삼국 시기의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반영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설정해 후백제 역사 문화지역의 유적·유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후백제는 통일신라의 본거지인 영남에서 발흥해 호남과 충청에서 세력을 모았으며,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정해 개창한 정식 왕조를 일컫는다.

후삼국 시대는 후백제 건국으로 시작해서 후백제 멸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또한, 후백제문화권은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 왕궁터, 왕릉터, 왕실, 사찰, 도성 등이 고증되거나 추정되고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법률 개정은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찬란했던 후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중대형 상용차산업 적극 육성"

민주 안호영 의원, 전북도 자동차산업정책 토론회 참석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29일 "전북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된 '전북도 자동차산업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전북도의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은 전국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의 중대형 상용차 산업의 발 빠른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 기업에 친환경차 기술전환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 ▲부품업체 및 소속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 확대, ▲경유차 폐차 및 친환경차 대체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정책위 선임부의장으로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스타일 '힐링 에버랜드' 추진"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전주를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전주스타일 '힐링 에버랜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북부권의 오송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동물원, 건지산, 일명 '오·소·동·건' 라인을 연결해 전주식물원과 상설공연장, 숲속 캠핑장을 조성하고 동물원을 새단장함으로써 전주한옥마을 1,000만 방문객을 넘어 2,000~3,000만 방문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게 약속했던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를 실현하고자 오송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동물원, 건지산 연결을 핵심으로 전주덕진공원과 덕진체련공원까지 아우르는 전주스타일 '힐링 에버랜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힐링 에버랜드의 핵심은 '오·소·동·건' 라인으로 100여 만㎡ 부지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오송제를 한국의 보타닉 파크라 불리는 미곡 서울식물원과 같은 '전주식물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전주에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방문객 역시 전주는 한옥마을 외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다행히도 동물원과 오송제 주변으로 축적된 자산이 많아 이를 잘 엮어내 전주를 대표할 만한 핫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을 청년 농업 천국으로"

한완수 군수 출마예정자, 4-H연합회와 간담회

한완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는 29일 "임실군을 청년 농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임실군 4-H 연합회'(회장 최용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임실군의 미래는 임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 청년농업 전담부서 설치, 농업 분야에 대한 균형적 지원 등 청년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는 임실 토박이인 한완수 의원이 토박이 임실청년농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용하 회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임실의 농업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면서 "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임실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완수 의원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실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청년 농업인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 하는 것이다" 면서 "신규 농업인과 성장 단계에 들어선 청년 농업인들이 제대로 임실에서 정착할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기자

"새 리더십 필요 속 전북을 대표해 최선"

김수흥 의원, 민주 원내부대표 임명… 원내대책회의 참석

"균형발전, 의정활동의 중점 목표… 원내대표단서 지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중앙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포함돼 앞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중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5월부터 야당이 되는 만큼 견제능력과 소통역량, 전문성 및 지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초선인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의원은 입법부대표로 임명돼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30년 경험으로 입법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점을 존중해 발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기 동안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도 반영된 결과로 읽혀진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권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새 원내지도부에 포함돼 향후 중앙당 내에서 전북을 대표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9일 오전 9시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수흥 의원은 "제 의정활동의 중점 목표를 균형발전에 두고 있으니 원내대표단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기자

"버스기사들을 위한 쉼터 조성"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택시기사 쉼터 공약에 이어 버스기사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약속했다.

우범기의 '전문현답'(전주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 예비후보는 29일 시내 버스회차지에 휴게공간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을 위해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인 '나들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 시내버스 회차지에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삼삼오오 차 밖에서 서성이거나 불편한 운전석에서 쪽잠을 청하는 것이 휴식의 전부"라는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운행 실태를 듣고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 난감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나들 쉼터'는 버스기사들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본 시설인 화장실, 휴게실, 샤워장은 물론 대기시간을 이용해 잠을 청할 수 있는 수면실도 갖추게 된다.

이밖에 TV와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등 부대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이 곳의 관리는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들이 맡게 된다. 단 버스 첫차와 막차의 운행시간을 고려해 2인 1조로 격일근무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 예비후보는 "당연히 있어야 할 시내버스 기사 쉼터 설치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운수종사자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얼굴"이라며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힘 전북도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2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2022년 제1차 도당운영회의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전북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부위원장에 송영남 전북도당 윤리위원장, 위원으로 최현석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문복실 위원(외부인사), 이삼일 위원(외부인사), 남완우 위원(외부인사), 손성준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는 사회단체, 법조계, 교육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전북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공천을 통한 전북의 정치문화 개선과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